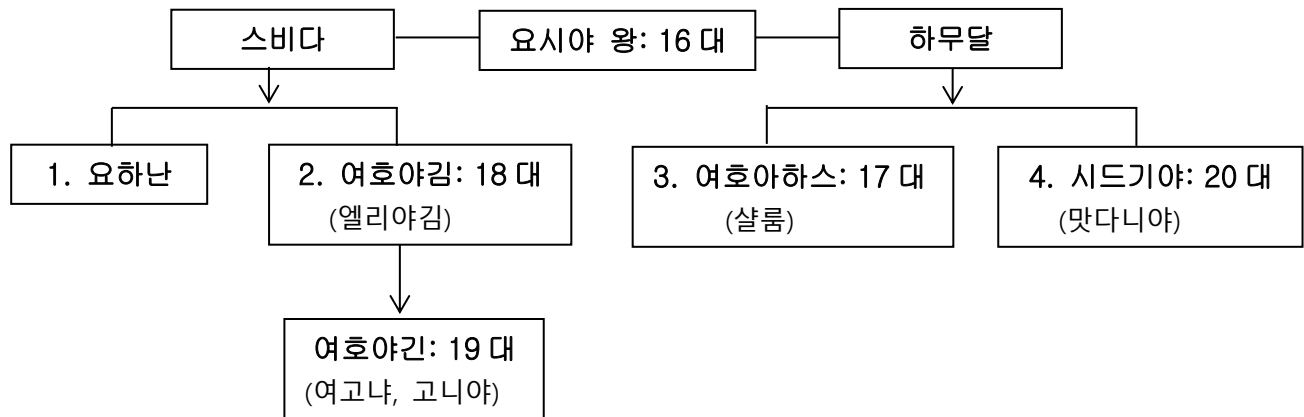


열왕기하 24. 유다의 마지막 왕들. (왕하 24 장 1-20 절)

들어가기

본 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라 인정받았던 ‘요시아’ 왕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왕 이후에 등장하는 유다 마지막 3 왕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긴 왕들이었고, 저들이 다스린 22 년 동안 유다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 참고: ‘요시아’ 왕의 아내와 아들들



1. 유다 18 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 절)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①. ‘여호야김’ 재위 4 년때 바벨론 왕이 되어 43 년간 나라를 다스림!

- 모압, 암몬, 아람, 유다, 앗수르등을 다 굴복/멸망시켰고,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격파한 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의 속한 영토를 지배함!
- 통치 말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유대 포로들을 신임하여 가까이 두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왕!

②. ‘여호야김’ 재위 8 년때 유다를 공격해 ‘여호야김’을 비롯한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감!

-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유대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 감!
- 당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를 한 후 예루살렘으로 무사귀환!
-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3 년동안 그 약속을 지키며 바벨론에 충성을 다함!
- 그러다 다시 ‘여호야김’이 친애급 정책을 펼치며 바벨론을 배신하자 모압, 암몬, 아람 등 속국의 군사들을 동원해 애굽과 유다를 공격하였고, ‘여호야김’이 사망하자 직접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여 자신의 손으로 친히 유다 왕을 세우고 떠남!!

2) 그럼 이와 같은 일이 유다에 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2-4 절)

- ①.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유다 백성들)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 (3 절)
- ②.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3,4 절)
 - 므낫세의 죄 = 적극적인 우상 숭배,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함
 - 참고 1. 이와 같은 ‘므낫세의 죄’는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의 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므낫세’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의미! (ex: 북이스라엘 = 여로보암의 죄)
 - 참고 2. ‘므낫세’는 개인적으로 회개한 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음!
- ③.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 (4 절)
 -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 참고로 하나님은 ‘므낫세’ 왕 시대에 또 그의 아들 시대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셨고, ‘요시아’ 왕과 같은 의로운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음!!

2. 유다 제 19대 왕 ‘여호야긴’의 통치 (8-17 절)

- 1) ‘여호야긴’은 18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 개월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8-9 절)
 - ①. 아버지는 ‘17 대 왕 ‘여호야김’이고, 어머니는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음.
 - ②. 그는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
- 2) ‘느부갓네살’ 왕 8 년,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하였습니다. (10-17 절)
 - ①. 곧 ‘느부갓네살’ 재위 4 년 (여호야김 8 년)에 1 차 침공! ->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감.
 - ②. 그 후 4 년만에 다시 2 차 침공이 있었다는 것!
 - 표면적 이유 = 아버지 ‘여호야김’ 왕의 배신 때문!
 - 영적인 이유 = 회개치 않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것!!
- ③. 2 차 침공의 결과는?
 - ①. 여호와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어 파괴하고 빼앗아 감! (13 절)
 - ②.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용사 만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잡아감!! (14 절)
 - 특히 14 절에서 주목할 표현!! = ‘모든’ => 총 4 번이나 강조되어 사용됨!!
 -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만 남게 됨!!
 - 참고로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개’가 있음!
 - ③.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자들을 잡아감!! (15 절)
 - 참고: 예레미야 22 장 24-26 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 ④. 또한 유다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감!! (16 절)
(ex: 용사 7000 명 + 장인과 대장장이 1000 명)
- ⑤. ‘여호야긴’을 대신할 왕으로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인 ‘맛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꿈! (17 절)
 - ‘맛다니아’란 이름 = ‘여호야의 선물’이란 뜻.
 - ‘시드기야’란 이름 = ‘여호와 의’란 뜻.
 - 참고로 현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맛다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시켰다기 보다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좌에 오른 ‘맛다니아’ 측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람 백성들에게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기 통치를 해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해석하기도 함..
 - 실제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 그는 나람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국외정책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충고를 듣는 것처럼 보였음!!

3. 유다 제 20대 왕 ‘시드기야’의 통치 (18-20 절)

- 1) ‘시드기야’ 왕은 21 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 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 ①. 아버지는 유다 16 대 왕 ‘요시아’ 이고, 어머니는 그의 둘째 부인인 ‘하무달’이었음.
 - ②. 참고로 그의 형인 ‘여호아하스’는 유다 17 대 왕으로 3 개월 통치함.
 - ③.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대 왕들의 모든 악한 길을 따라 행함!!
- 2) 결국 이 같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악행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쫓아내시게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19 절)
- 3) 이후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 왕처럼 애굽의 힘을 의지하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습니다. (20 절)
 - 참고로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드기야’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신함!! (렘 38:17-19)
 - 이 일로 인해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 당하게 됨!!